

티모르섬의 동쪽 끝자락, '뚜뚜알라' 에서

딜리팀의

2월



뜨거운

보고서

TIMOR LESTE





dezembru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Domingu(日)
1 Ymca 축구경기	2	3	4	5 Visa trip	6	7
8	9	10	11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	12	13	14
15	16	17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	18	19 팔찌 만들기	20 크리스마스 행사	21
22	23	24 Tutuala 여행	25 크리스마스	26	27	28
29	30	31	1 총장님 댁에서 홈스테이	2	3	4



# 12월의 여정

Visa trip

크리스마스 발표회

**Festa Natal**

6일 간의 일탈

Tutuala 여행

까를로스의

딜리 걷기 2탄

아이무덴에서 온

**마니포**

딜리팀이 추천하는

**아띠 책방**

12월의 소소한 풍경들

**소풍**

개인에세이

# VISA TRIP IN Indonesia

## 동티모르 비자 만료로 떠나게 된 비자ทริป!

행선지는 티모르의 가깝지만 먼 이웃, 인도네시아다.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는 모든 것이 새롭다.  
아띠들만의 여행이라 설렘도 컸다.



## 우리에게 비자 트립은?

서로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덕에  
'우리' 를 새롭게 바라보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

무엇보다 지난 날들에 솔직해지고  
앞으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

# In Bali

티모르에서  
딜리팀 애들  
온다던데  
언제 온다냐?

딜리팀이라면 모두 들린  
다는 우리 몽키포레스트  
인데... 안와..? 안와??!

배곰

어! 저기 온다!



**Monkey Forest에  
온 걸 환영한다!**



반갑다 친구야!



나 없어도  
잘 지냈냐?



바나나야?  
손가락이야?  
일단 씹고 보자



“이놈자식,  
그라믄 돼? 안돼?”

픽픽...

“아니 그냥 난 반가워서...”

# 밍가스 생각 IN Indonesia

발리 우붓의 한 재래시장에서 싼 기념품들을 찾아 다같이 몇바퀴씩 돌았었다. 그런데 돌아 보니 파는게 다 거기서 거기인지라 돌면 돌수록 가격이 낮아지는게 아닌가. 내가 일반상점에서 이걸 대박이라며 산 만원짜리 악기가 시장에서서는 훨씬 싼 가격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팀원들은 삼천원짜리를 만원에 샀다고 놀려댔고 난 태연한척 하려 했다. “그땐 분명 만원을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거니까 이걸 만원짜리야yy 여기 있는 삼천원짜리랑 다른거라니까~”

시장, 특히 관광지에서는 돈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다.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는 무시할걸 알면서도 끈질기게 세번이고 네번이고 나를 불러야만 하고 나는 사양의 제스처가 통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몇번이고 그를 무시해야만 한다. 돈이 우리를 무시당하고 무시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남들보다 비싸게 사서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흥정을 넘어선 신경전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물건을 사기 위한 제일 적절한 가격은 꼭 가장 싼 가격이어야만 할까? 내가 기분 좋게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고 상대가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면 그게 제일 적절한 가격이 될 순 없을까?

물론 나도 3천원 짜리를 1만원에 산다면 7천원의 기회비용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 마냥 배가 아플 것 같긴 하다. 돈때문에 바가지를 씌우려 하고 그 돈때문에 깎는 재미가 있다고곤 하지만 물건값을 잘 못 깎는 나는 정가가 아닌 물건을 살 때 늘 긴장되고 주눅이 든다. 그러나 종업원의 제스처, 흥정, 불친절들이 예전에는 넘어가면 안되는 장삿속, 지지 말아야 할 신경전, 제값을 못 받은 것 같은 불편함 등으로 다가왔다면 요샌 내가 돈 때문에 사람과 이렇게 실랑이하고 서로 기분 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다들 먹고 살자고 사는 세상인데 말이다.

발리에서도 그랬다. 밥을 먹어도 택시를 타도 물건을 사도 이전 사람들이 그저 단순한 종업원, 상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들도 집에 돌아가면 엄마이고 아빠이고 딸이겠구나. 옛날 같으면 그냥 ‘동남아 사람’으로만 보였을텐데 이전 각자가 하나씩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한 개인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비록 우리의 관계가 ‘치불과 서비스’로 연결된 사이이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 너머로 그 사람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듯한 착각 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분명 내가 동티모르에서 맺은 수많은 인연과 관계들이 내게 준 새로운 인식 덕택이다. 다 똑같은 얼굴, 우리랑 다른 동남아인이 아니라 내 친구, 내 가족이 되어준 동티모르의 내 인연들처럼 이들도 자기 삶의 주인공일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는 그저 동남아 개도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발리가 있는 관광지 정도? 나는 아시아 감성은 커녕 상식도 없는 수준이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인구 4위라는 것,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80%를 차지하는 동남아 이슬람 강국이라는 것,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식민지배 했었다는 것 등 인도네시아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대단한 나라였다.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 TV프로를 보고 있자면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것 이상의 동경이 생기려 한다. 내가 어디에 속해있는가가 나의 시각과 세계관을 좌우하는 것이다.

어느새 생활이 된 티모르에만 있다가 인도네시아를 가니 정말 외국에 온 기분도 들었지만 '못사는 나라'에 관광 왔다는 느낌보다는 엄청난 문명의 도시로 여행 온 기분이 들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왔다면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불편함이 적지 않았을텐데 말이다.

한 사람을 개인이 아닌 역할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어떨 땐 폭력적이기까지 한 위험한 사고이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 또한 외부 입장에서만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사고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다.

국내훈련 때, 라온아띠를 규정하는 여러 키워드에 대해 우리만의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이 있었다.

“아시아”.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마인드맵을 그리는데 다른 키워드와는 달리 아시아는 도통 떠오르는게 없었다.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개념이었고 우리라는 인식은 더더욱이 없는 먼 단어였다. 그나마 나오는 단어들은 다소 부정적인 개념들, ‘가난’, ‘더위’, ‘많은 인구’, ‘태풍 피해’ ...

비록 문화도 환경도 역사도 우리랑 공통점이 많지 않지만 세계는 하나로 생각하면서 아시아는 타자화시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아시아는 남의 나라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우리는 아시아인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부터 모든게 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FESTA NATAL**

**크리스마스 발표회**

# FESTA 에 가면 NATAL

연극도 있고

NoNoNo~

디스코 댄스도 있고

춧불무용도 있고

다함께 기도하고

예쁜 팔찌도 만들고

“안 갈 이유가 없잖아?”

따라와~



**YMCA**  
**FESTA NATAL**

Boa tarde, ho laran ksolok  
ami konvida inan-ama atu partisipa lha oan sira nia !  
Festa Natal hamutuk .Labarik-sira halo drama <Moris Jejus>, dansa seluk tan.  
Depois Ami hakarak inan-aman mai  
Ho haree labarik-sira no senti haksolok hamutuk.  
~ Obrigado ~

Laran : 20-12-2014(Sabadu)  
Tempu : Lokraik 17:00  
Fatin : Sentru YMCA

# FESTA NATAL 크리스마스 발표회



매년 산타 라파엘라 수녀원과 함께 준비했던 발표회,  
하지만 올해는 YMCA 단독으로 테라산타 센터에서! ©



**우리들의 역할 분담!**  
시코는 연극, 베르타는 디스코댄스  
밍가스는 촛불무용, 까를로스는 다함께 기도를!

# FESTA NATAL | 연극 \_ 시코



Drama Natal  
<Moris  
Jejus>

크리스마스 연극  
<아기예수의 탄생>





“연극 말고 싶다” 말할 적, 제일 어려워보이는 거 한번 도전해보자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현지 간사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았다. 외려 그만큼 송구스러웠다. 이유인 즉슨, 연극배우 윤석들을 데리러 가면 동전 따먹기 하느라 두, 세 번 불러야 오길 다반사. 더욱이 동네에서 하는 첫 발표회라 친구 앞에서 연기하려니 더 쑥스러웠을 거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다 모여도, 떠들거나 장난치기 바쁘다. 조용히 해달라는 내 말을 듣길 하나. 그야말로 가시방석. 소란스런 연습에 현지 간사님이 박차고 나가셨던 적도 있었다. 먼저 와 기다리는 아이들, 간사님들께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함에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연기에 몰두하거나 이 상황이 재밌는 듯 ‘까르르’ 웃는 녀석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연습 마지막 날, 의상과 소품을 받고서 무척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일찍 나뉘웠더라면 더 몰입하기 쉬웠을 텐데 하는 반성도 했다.

발표회 당일, 장난기는 접어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연기에 몰입하던 녀석들.  
가족과 친구 앞에서 최선을 다한 너희들의 용기는 Kapaas(최고) 였어!

덧붙여 연극 진행을 도와주신 현지 간사님들, 소품 구하고 만드느라 고생한 아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Obrigadu Barak!

# FESTA NATAL | Disco(K-pop) - 베르타

다섯 명의 귀여운 소녀들이 준비한 k-pop 댄스.  
이번 페스타에서 테라산타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한 춤은

A-pink의 NoNoNo!

연습 기간 동안 무대에 참여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언니들이 춤추는 것을 구경하던 동생들과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엉덩이를 흔들며 NoNoNo를 추며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처음엔 춤이 너무 어려워서 못 추겠다고 해서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던 k-pop 댄스를 결국 마스터하고  
무대에서 NoNoNo를 아주 멋지게 춰 낸 테라산타 친구들!

Dansa disco를 담당했던 베르타는 이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 FESTA NATAL | 촛불무용 \_ 밉가스



다섯 천사들이 준비한 촛불 무용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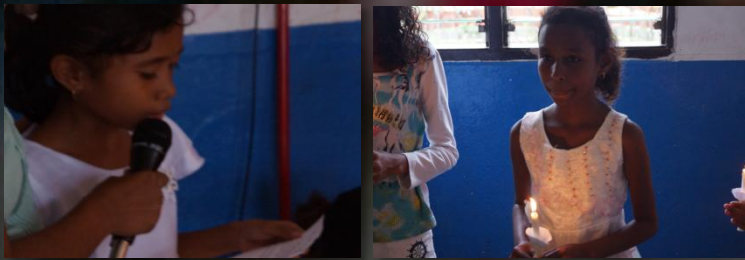
열심히 설명했대도 불완전한 현지어로 부족한 지도였을텐데,  
뜰뜰한 우리 아이들은 잘하는 친구가 더딘 친구를 도와가며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내었다!

곡명은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  
다섯 천사가 기뻐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내용의 가사와 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번엔 꼭 현지어인 떼뎀어로 된 곡으로 선정했으면 하는 피드백과  
다른 나탈행사 참가자와 겹치지 않도록 행사참가자를 고루 뽑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테라산타 단독으로 아피들이 처음 준비한 행사라 아주 뿌듯한 무대가 되었다.

# FESTA NATAL | 촛불기도 \_ 까르로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기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촛불 기도를 기획해 보았다. 특별히 많은 행사 일정이 없기도 하여서 전체적인 모니터링과 여기저기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용역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티모르 고유 명칭인 나탈(natal)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칭하는 한국말이 있었던가 하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다. 국민 전체가 가톨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다수가 가톨릭을 믿는 곳 이기에 이곳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생각 하는 그 이상이었다. 청년들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예수의 구유를 마을마다 만드는 모습 또한 정말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누가 시켜서 저런 걸 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비이상적인 시각이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게 한 것이다.

자발적 참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생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함께 했기에 연극, 디스코 등이 모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연습 할 때는 힘들다, 애들 참 말 안 듣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행사 때 진지한 모습으로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는 말끔히 잊혀졌다. 촛불기도로써 모두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 또한 고마움의 연속이었다.

누구를 위한 행사였을까. 모두에게 고맙고 무교인 나로서는 가장 뜻 깊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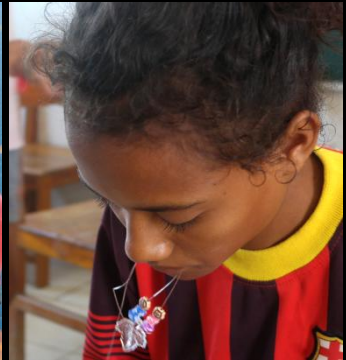




나만의 팔찌를  
만들어보아요~ 😊



FESTA NATAL





아띠클라씨 음악시간 등 개그팀  
찬조공연 "고요한밤, 거룩한밤"  
찬조공연 "고요한밤, 거룩한밤"



9기 아띠의 댄스 부활!  
소녀시대 "Gee" 무대



맛있는 간식도 선물받았어요!  
맛있는 간식도 선물받았어요!



팔찌 못 만든 친구들도 하나씩~



내가 바로 베스트 포토그래퍼다!



'주는 건지 뺏는 건지  
알 수 없는 사진...'

*Tutuala* 로  
떠나는  
6일간의 여정



# 1일차: Tutuala로 출발

## 티모르에서 떠나는 첫 여행!

가톨릭 국가인 티모르는 크리스마스과 새해를 맞아 약 2주간의 긴 휴일을 보낸다. 이 기간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는데, 우리 딜리 팀은 우디스 간사님과 함께 간사님의 시댁인 Tutuala로 떠나게 되었다.

험한 길로 인해 덜컹덜컹 흔들리던 차와 비좁은 차 트렁크에 꾸역꾸역 끼겨 앉아 떠났던 조금은 고생스러웠던 여행의 시작. 여덟 시간의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흠먼지 날리는 대도시(?) 딜리를 벗어난 딜리 팀에게는 이 고생마저도 즐겁고 설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8시간을 달려 도착한 Tutuala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간사님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긴 여정으로 지쳐있던 우리들은 편안한 마음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 2,3일차: 휴식 또 휴식



시원한 바닷바람, 상쾌한 산들바람이 우리를 스친다.

집 앞에 앉아 청년들과 수다도 떨고 낮잠도 자고,  
심심하면 푸자다 호텔에 올라 푸른 바다를 안아보고  
먼 바다에 버 내리는 진기한 풍경도 담고  
산자락을 누비는 원숭이도 불러왔다.

가끔은 이 순간, 이 공간에서 환갓 쉴 수 있음에 놀랐다.  
우리가 이 곳에서 함께할 수 있음이 그저 좋아서 😊



# 4일차: 자코섬에서의 크리스마스

티모르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섬 자코는 만나기도 참 힘들었다. 성한이는 장에 탈이 나서 왕복 4시간 거리의 산행은 무리가 될 것 같아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다. 뽕뽕 숨겨둔 무인도라 그런지 가는 길도 험난 험난... 차도 없이 산길을 걸어 두 시간을 갔는데... 웬걸... 티모르가 아니라 아마 지구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깨끗한 지상낙원 이었다. 세상에 또 이런 곳이 있을까 하는 기분을 한층 더 업시켜 주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무인도 라는 것! 예전부터 사람이 살지는 않는 섬이라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왔다고 한다. 티모르 특성상 관광객이 많지 않고 이날 또한 무인도에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릴 더 들뜨게 했다.

말 그대로 섬을,,, 무인도를 빌렸다... ♡

오며 가며 힘든 4시간을 보냈지만 함께 힘든 길을 같이 걷고 또 간만의 휴식을 아름다운 자코섬에서 보냈더니 티모르를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 ♡

# Maun Alfeo와의 만남

자코섬 입성 전, 뱃삿을 절대 깎아주지 않는 사공들!

우리는 자코섬이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경비를 아껴보고자 배 근처에서 아슬 아슬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여기도 충분히 예쁘다며 위안을 했지만 우리가 놀고 있던 바닷가는 바닥에 돌이 많아 미끄럽고 위험한 곳이었고, 물살이 빨라 하마터면 바다로 휩쓸려 갈 뻔 하기도 했다.

이 때, 운명적으로 **마운 알페오**가 우리를 발견했다.

현지인인 알페가 적극 뱃삿 흥정에 나서주었지만 사공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흥정에 실패했다며 멋쩍어한 알페는 이 곳에 온 이상 **자코섬은 꼭 들어가봐야 한다**며 자신이 뱃삿의 절반(미화 20달러)을 보태줄테니 꼭 가보라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호의를 사양하고 알페와 함께 자코로 떠난 우리! 자코를 만약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피자의 빵테두리만 먹고선 맛있다고 행복해한 꼴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자코섬은 **지상이 아닌 것만 같은 천국**같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섬을 나와서는, 아침도 굶고 과자와 물로 2시간 등산과 3시간 물놀이를 버틴 우리를 위해 알페가 사공들에게 **공짜 밥과 반찬**을 얻어다 주었다. 밥은 든든히 얻어먹었는데, 하산길이었던 출발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가파른 산길을 등산해야 하기에 눈앞이 캄캄했으나, 알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지름길을 따라** 떠난 우리는 “정글의 법칙”을 한 편 찍기도 하였다.

은인이자 천사같았던 알페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묵고 있는 집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다음날 **알페의 집에 초대받아 알페의 멋진 기타연주와 한 편의 책 같은 인생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Maun Alfeo와의 만남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예요. 선을 그어 국경을 만들고 땅을 하나하나 나뉘어놓은건 사람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Maun Alfeo-

아띠: 마운(성인남성을 가르키는 존칭), 여러모로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난생 처음 본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호의와 친절을 베푸실 수 있었나요?!

알페: 돈이 많은 Tourist들과 발품팔아 여행하는 가난한 Traveler들은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여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여행자들과 이야기하고 어울리는게 즐거워요. 여러분은 딱 봐도 가난한 배낭여행자들로 보였습니다 😊

아띠: 마운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알페: 그림도 그리고 악기도 연주하고 여행도 하면서 살아요.

아띠: 그렇게 살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나요?

알페: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건 지금 바로 이 순간뿐이에요. 올 지도 안 올 지도 모르는 내일만 준비하면서 사는건 참 슬픈 일이에요.

아띠: 마운은 미술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대학에서 전공하셨나요?

알페: 저와 제 동생은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늘 배울 수가 있죠. 저는 학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학생 40명이 모두 다 다른 개인이고 다 다른 40개의 개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배우는 선생님은 하나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띠: 마운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누구인가요?

알페: (망설임없이) 저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요.



우리는 알페와 밤이 깊도록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팀원들이 읽은 <남쪽으로 튀어>에 나온 아버지 같은 그의 자유분방하고 깨어있는 사상에 큰 감명을 받았다.

# 5일차: 마을 아이들과 팔찌만들기

5일차, 뚜뚜알라에서도 산꼭대기에 위치한 이곳 마을엔, 작은 교실 하나가 전부인 한 초등학교가 있다. 아띠들은 이곳을 일일방문해 딜리 테라산타에서 최고 인기클래스였던 **팔찌만들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번 진행해본 수업이지만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된 이유, 이 시간이 얼마나 **카오스**인지를 한번 경험했기에 아띠들은 능숙하면서도 다소 긴장된 자세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아띠들의 열려와는 반대로 수업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재료가 넉넉하여 팔찌 개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더 만들어도 된다고 했음에도 난 이 만큼만 만들면 된다고 재료를 도로 돌려주기도 하였다. **차분히 앉아서 자신이 갖고 싶은 만큼만 만들고 친구에게 양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산골 아이들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이 아띠들에게도 전해지는 듯 하여 마음이 푸근해지는 하루였다.

# 6일차: Good-bye Tutuala~

딜리에서 탈출해 공기 좋고, 별이 쏟아질 듯 하던 Tutuala에서 힐링 여행을 보낸 딜리팀은 꿀같은 그들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그들의 보금자리인 딜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6일 동안 정들었던 집안 사람들과 이웃들과 헤어진다 하니 아쉬운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갈 길이 멀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Tutuala의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해야 했다.

처음 Tutuala로 아띠들을 데려다 줬던 그 차는 그날 다시 딜리로 돌아 갔기 때문에, 딜리팀은 티모르 팀 최초로(!) 버스를 타고 딜리로 와야 했다. 가끔 딜리 거리에서 보기만 했던 말도 안되게 휘황찬란한 그 버스를 타는 색다른 경험은 매우 신선하고 재밌었지만, 한 번으로 충분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ㅋㅋ).

옆 사람과 어깨를 맞대야 하는 좁은 좌석과 통로가 남자 손 한 뼘도 안 되는 협소한 공간에 사람은 물론 닭과 돼지 염소도 같이 타는 신개념 버스. 1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서서 가는 사람은 물론 문에 매달려서 가는 사람도 여럿이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버스 안의 닭이 알을 낳고, 폭우가 쏟아져 짐을 내리러 버스를 멈춘 아주머니는 샤워까지 하시고 재탑승하였다... 지치고 힘들긴 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상 깊은 여행이었음은 틀림없다. 저녁이 돼서야 딜리에 도착했는데, 딜리의 수 많은 불빛들을 보고 있자니 미국의 L.A.도 이보다 화려할까 싶었다. 평소 '수도가 뭐 이래' 하며 딜리의 규모에 실망했던 딜리팀에게 이제 딜리는 그 어느 도시보다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대도시가 되어있었다고 한다.



나도 몰라...

얼마나 더가야  
돼? π π

# 카를로스의 딜리 걷기 2탄

우리숙소  
'아이무틴'

핫플레이스  
티모르플라자

우리에게 특별한  
시노도성당

니콜라우  
로바코  
동상

산미구엘  
고등학교



딜리에 처음 와서부터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인상 깊었던 동상. 이 동상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자면 초대 대통령인 이 동상은 바라보는 방향을 놓고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니콜라우 로바코! 하지만 안타까운 구설수도 있는데, 티모르는 아직 전기와 물이 자주 끊기는 편인데 이 동상만큼은 24시간 물이 나오고 밤새 조명을 켜둔다고 한다. 상징적인 동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환경들도 어서 개선되길 바란다.

니콜라우 로바코 동상  
티모르 초대 대통령인 니콜라우 로바코  
동상은 티모르의 수도인 딜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카를로스의 딜리 걷기

요즈음 들어 더 태양이 뜨거워지고 우기로 접어들어 걸어 다니기에 힘든 태양이지만 왠지 모를 건강해지는 느낌이기에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곳은 바로 한국에도 잘 없는 스케이트 보드를 탈 수 있는 곳이다.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에도 찾아 보기 힘든 곳인데 굉장히 이쁘게 적당한 규모로 잘 조성이 되어 있다. 자유롭게 낙서도 되어있고 청년들의 자유분방함이 물씬 느껴지는 곳이다.



살벌한 철망으로  
안전한 보안이  
철통같은 기숙사!

티모르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현장  
산미구엘 고등학교!!

내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지나갈 때면 항상  
센터친구들이나 동생들을 찾게 되고 에너지 넘치는  
학교를 보며 나도 힘을 얻는다.

# 카를로스의 딜리 걷기



가톨릭이 절대다수 국가인 티모르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명절이다. 휴일도 무려 2주나 되고 마을마다 청년들이 예수가 태어난 마구간을 만든다. 마을마다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마구간을 만드는데 걸어 다니며 다양한 마구간을 구경하는 것도 12월만의 특별한 재미였다.



# 카를로스의 딜리 걷기

이곳은 센터 뒷동산에 있는 라떼! 라떼라고 들으면 이쁜 이름같기도 하지만 실은 무덤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진 속의形形色색의 저것들도 무덤이 모여있는 것인데 마을과 센터 바로 뒤의 동산에 있다. 무덤이라고 하면 약간은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 정말 이쁘게 잘 되어있다. 또 올라가면 경치가 예술이기에 자주 올라가곤 한다. 이렇게 걸으면서 혹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이쁜 곳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게 정말 기쁘다.



# 카를로스의 딜리 건기



드디어 센터 도착! 이렇게 눈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센터에 도착하게 된다. 대략 30분 정도? 운동하기에도 딱 적당한 시간이다. 이사진을 보면 센터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할 아피들이 많을 것이다. 원래는 저 잔디가 있는 곳이 센터와 마을이 함께 쓰던 운동장이었다.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갑자기 없던 땅주인이 나타나서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눈뜨고 코베인 기분으로 점점 높아지는 담벼락과 건설현장을 바라볼 뿐이다. 티모르도 많은 개발이 되고 여러 건물이 들어서겠지만 부디 공동체가 원하지 않는 개발은 사양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기를 바란다. 특히 12기가 있는 동안 총장님도 바뀌고 센터 운동장도 사라지는 등 많은 일들이 있지만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찌면 다같이 힘을 내서 더욱 활동에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카를로스의 딜리 건기 끝.



1. 마니포의 목적  
→ 친목도모 (대동고 잘해줄 기회!)

2. 마니포 뽑는 방법

→ 제비뽑기 (자기자신이 걸려도 다시는 뽑음 ~ㅎ)

3. 기간

→ 제비를 뽑는 순간부터 23일까지.

4. 마니포 활동 방법

→ ① 자신이 마니포인 것을 들이지 않고 상대에게 잘해주기.

② 마니포 무체부는 마니포 무체통에 있는 물품들을 주인에게 전달해준다. (단, 마니포 무체부는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한다.)

5. 마니포 Party night (23일 저녁)

→ 마니포를 공개하고,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자신의 애장품 (선물x)을 전달한다.

+ 마니포와 기념촬영

+ 베스트 마니포 시상식 (소정의 상품이 있을 예정)

+ 마니포를 공개했는데, 상마니포일 시 사귄다.

6. 마니포 중간평가 (12월14일)

→ 자신의 마니포가 누구일지 적어서 마니포 party night 때 그것을 확인한다. (예상하며)

② 중간평가 때 예측한 마니포와 마니포 파티 나잇 때 예측한 마니포가 일치하고 그게 진짜 마니포일시 마니포 활동 실패로 간직하고 벌칙을 받게 됨. (벌칙은 추후공개)

행운을 빕니다 ~

\* 참가자: 구슬이, 김기연, 김승창, 남유림, 송성한, 안정진, 양동화, 정창효

\* 진행자: 구슬이, 김기연

\* 무체부: 양동화

+ 누구에게도 지목받지 못한 사람은 벌칙이 있을 예정

# 아이무틴에서 온 마.니.포

3명의 한국 간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딜리팀. 딜리팀 내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매일 함께 생활하는 간사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마니포를 해보면 재밌겠다!는 얘기가 나와 시작하게 된 추억의 마니포!!

친목도모를 위해 시작한 마니포였지만 그 이야기의 끝엔 즐거움과 소소한 감동 그리고 엄청난 반전이 있었다.

매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서로의 마니포를 위해 남 몰래 잘해주고 즐거워했던 아이무틴 사람들에게 이번 마니포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 같다.



마니포 party night (2014.12.19)

마니또 진행자에게

# 물습니다!

Q. 이번 마니또가 잘 진행된 것 같나요?

A: 네, 이번 마니또는 아주 흡족스러웠습니다. 친목도모는 물론 소소한 재미와 감동까지, 아주 즐거웠던 마니또였습니다. 꺄꺄

Q. 가장 활약했던 마니또는 누구인가요?

A: 불꽃 연기를 펼치셨던 양동화 감사님이 하늘가 싶네요. 연말에 여우주연상을 노리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꺄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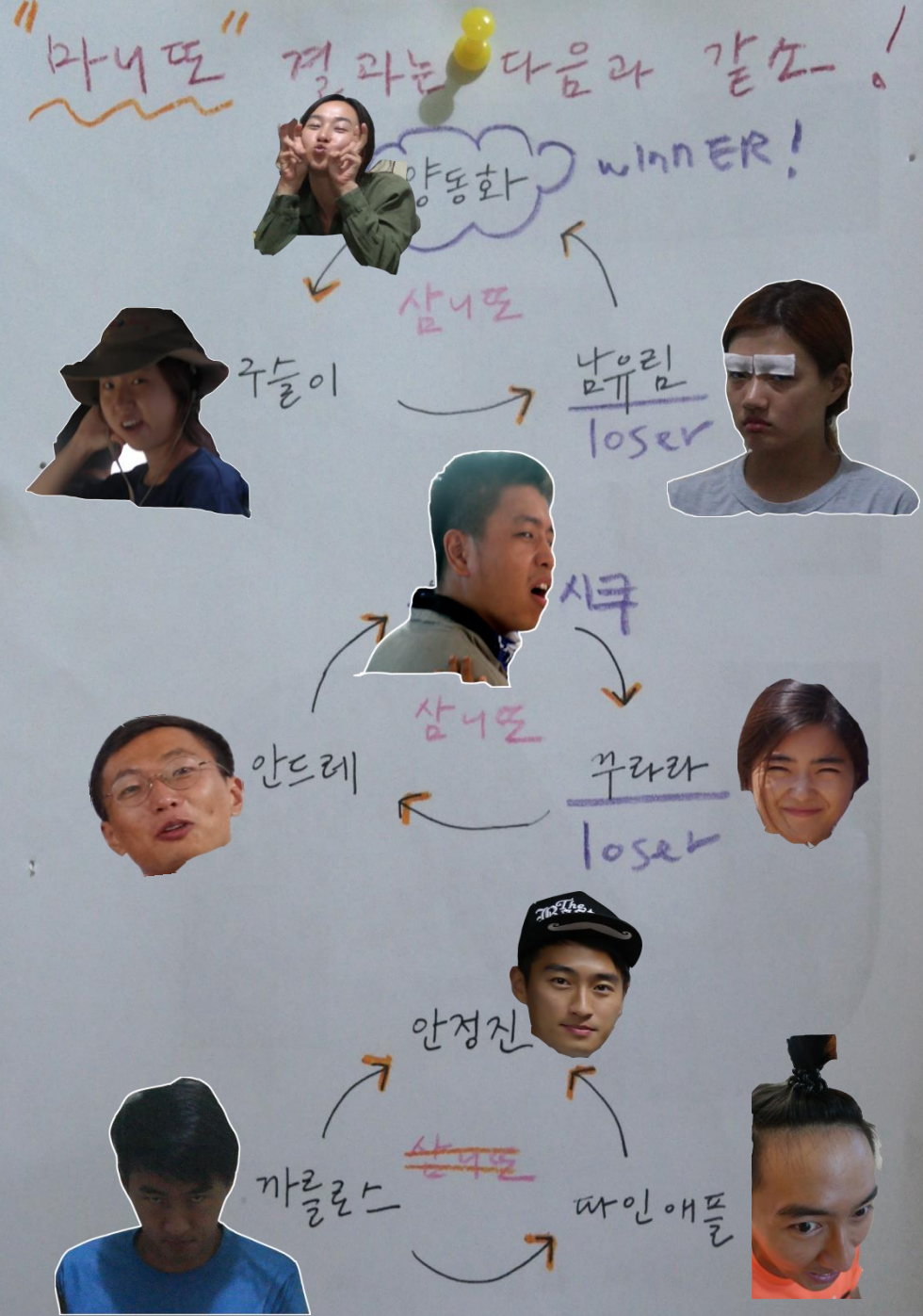
Q. 아쉬운 점이 있었으시다면?

A: 마니또 파티나이트 숙소 옆 중고시장에서 마니또를 위한 옷을 사서 그걸 입고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급하게 변경돼서 그러지 못한 게 아쉽네요. 아참 그리고 쌍마니또가 나오면 사귀기로 해서 모두가 그걸 아주 기대했는데, 쌍마니또가 나오지 않은 게 정말 아쉽네요.

Q. 자기가 자기를 뽑은 참가자가 있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가를로스가 그 당사자이죠. 먼저 만든 룰에서 변경은 불가능하게 해놔서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마니또에게(자기자신) 잘해줬던 참가자 중 한 명이죠.

가를로스가 고른 미션 중에 마니또에게 칭찬 3번 해주기가 있었는데, 매일 센터에서 가를로스 마데넥~(가를로스는 똑똑해~) 이라고 하며 미션에 성실히 임해 주었습니다.





Carlos's recommend  
 <남쪽으로 튀어1,2>  
 오쿠다 히데오 씀

'국가는 필요없다' 라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유쾌하고도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책을 누군가 추천했다면 거들떠 보지 않았겠지만, 우연한 기회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읽게 된 책이다. 전혀 정치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책으로서 모두들 남쪽으로 튀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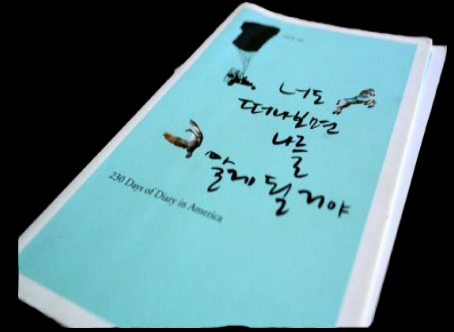
Mingas's recommend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14, 55년의 기록>  
 유시민 씀

과거를 이야기하고 곱씹고 재평가하는 것은 과거를 위한 일이 아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싶어서"이다. 한국뉴스나 신문을 보지 못하는 대신 즐겁게 읽은 책이다. 책을 읽는 내내 앞으로 동티모르가 거쳐야 할 개발의 역사와 새로 써 내려갈 현대사에 대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결코 중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중립적인 작가의 역사책.



Berta's recommend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씀

책 맨 앞장에 누군가가 '6장 넘겨보고 이상하면 벽을 향해 던지시오' 라고 써놓은 글을 보고 '조금만 이상해도 진짜 던져야지' 하는 반항심에 읽게 된 책. 하지만 웬 걸 베르타는 책을 벽에 던지기는 커녕 엄청난 두께의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다고 한다. 마음이 정말로 따뜻해 지는 책. '나만 왜 이렇게 힘든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으면, 나미야씨가 당신의 나야미(고민)를 해결해 줄 것이다.



Francisco's recommend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거야>  
 김동영 씀

"아띠들은 떠나보니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저자는 라디오 작가 일을 하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통보를 받고 미국 동~서 일주를 떠났다. 낯선 풍경, 사람들 속에서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사막 한 가운데서 차가 고장 나고 수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지독한 고독감을 느낄 때도 있다.  
 공간은 다를지라도 누구나 비슷하지 않을까. 즐거움, 지독한 고독, 그리고 치유. 모든 건 사람이 하고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걸. 더불어 그를 통해 '나'를 알게 될거란걸.

# 아띠책방

동티모르팀 아띠 숙소에는 현지한국간사님들과 이전기수 아띠들의 기증으로 꾸며진 보물 같은 책장이 있다. 휴식시간이 생기면 딜리팀은 주로 독서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4개월간, 티모르에서의 감성으로 읽어낸 12기 딜리팀의 추천책 Top 4를 소개하고자 한다.



12월의 소소한 풍경들,  
소담이









폭발적인  
반응이었던  
풍선놀이시간





# 까를로스, YMCA 축구단 9번 선수 출전-!

어디 한번  
나가볼까~?

장난 아니구먼-

이게 바로  
스포츠맨십!





12월의 사진기사이자 bee(물)tee(변)으로 2주간 고생한 시코가 사진에 자주 실종된 관계로 시코 특별전이 있겠습니다-

제목 : Sico sempre hamrasa(시코는 늘 웃어) ☺

# 허리는 요로케 튕겨줘야제



#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닙니다



# 대(박)변(태)인의 감정표현



더,,,  
더 만져줘

**나는 인형이 아니에요**





# 12월의 '에세이'



# Francisco's Essay

거리낌 없이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좋다

일기를 쓰다, 내가 이런 문장을 썼다는 데 놀랐다.  
녀석들이 오면 꼭 안아주고 뽀뽀도 할 줄 알고,  
가끔 감동받아 울컥할 줄 아는 나였다.  
그래, 사람을 대함에 망설임이 줄었구나.

고맙다. 그리고 기쁘다. 이런 내가 ☺







# 12월, 비워냄

12월의 목표를 세웠지만 단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과했던 걸까. 12월은 내게 뭐든 과하면 안 된다는 지혜를 되새겼다.  
고로 시코가 명명한 12월은 '비워냄' 이다.

홈스테이 사촌동생이 머리카락을 시원하게 잘라주는 것으로  
시작한 12월. 덕분에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이 달, 일기에 가장 많이 쓴 문구는 '장아, 내일은 나아지자. 제발~'  
결국 근 2주간 설사에 시달리며 의도치 않게 살도 빠졌다.

지난 날과 관계에서도 좀 더 자유롭다.  
컴퓨터에서 '삭제' 클릭하는 건 망설임 없이 쉽게 하면서 정작 마음은  
혹은 나는 그렇지 않았다. 무거운 건 나누면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것들은 이렇게 털어내면 되는 데.

일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구절도 있었다.  
'흉터를 모두에게 보여주면 다음에는 가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가벼워진 만큼 외려 관계에 대한 자신감은 커졌다.  
'잘생겼다' 는 소리도 더 많이 듣고. ㅋ

비워냄의 지혜,  
2014년 12월은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가르쳐줬다.

# TIMOR LESTE



## Berta's Essay

솔직하게 말할게.

참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긴장되는 말이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솔직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제 무언가를 털어놓을 것이라는 일종의 공포탄 같다. 듣는 너에게나 말하는 나에게나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솔직하게 말한 그 후의 일은 도무지 어떤 방향으로 될 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말했느냐, 너가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듣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나에 대한 너의 생각이 달라지며,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다.

11월이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 솔직해 지는 달이었다면 12월은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달이었던 것 같다. 용기는 물론이고, 두려움도 많았던 달이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기 보다는, 그냥 진짜 내 솔직한 심정만 구구절절 늘어놔서 상대에게 상처도 주었던 것 같고. 이런 얘기까지 털어놔준 너의 용기에 고마움을 넘어 미안하기까지. 또 내가 몰랐던 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돼서, 지금에서야 알게 된 너의 심정에 가슴 아파 하기도 했다. 솔직할 수 있던 내 자신의 용기에 감사하면서도, 나를 이해해 준 너의 포용에 더 감사한다.

# Mingas's Essay



12월은 여유로웠다.

절반은 비자트립과 뚜뚜알라로의 여행으로 생애 꿈을 특별한 추억들을 남겼고 매일의 준비로 허덕였던 아띠클라쎬 대신 아이들도 아띠들도 즐겁게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 발표회로 남은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대신 1월은 바쁘다.

절대 잊지 못할 우리 동네청년들과의 **소풍**과 테라산타 꼬마들과의 **운동회** 한마당 완소남 **조디 간사님댁**에서의 홈스테이, 그리고 **테라산타 가족집**에서의 2박3일 피스커피 원두 산지인 **사메지역**과 딜리바닷가에서 늘 보이는 **아타우로 섬** 방문 센터의 주된 활동교실인 **Aula룸 단장**, 손씻기 교육이 주가 될 **위생 캠페인** 라온아띠 활동을 정리하는 공식 일정만 해도 정신이 없다.

그 와중에 지금은 어느새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를 생각해봐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내 인생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이 5개월이 남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돌아가면 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들에게 “어떤” 친구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은 내 삶의 나침반이자 평생의 고민이다.

라온아띠가 되어 5개월을 살아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5개월 이후의 시간들과 나를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다행이 티모르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연중 제일 큰 축제날이라, 기온은 달랐지만 최고로 쿨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근데 뜨거운 태양별 타인지 2014년은 가고 2015년이 온 것이 아직 실감나질 않는다. 2015년, 신년엔 나도 티모르만큼 뜨거운 사람이고 싶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보았다.  
저렇게 멋진 모험을 꿈꾸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됐듯  
나 또한 내 상상이 현실이 된 순간을 살고 있다.

근데 이게 또 나한테 진짜 그냥 현실이 되어버렸다.  
현실은 '생활'이 되고 일상은 '평범'해진다.  
물론 생활과 평범함 속에서 소중함을 잃진 않으려 한다.  
하지만 소중함과 특별함은 조금 다르다.  
현실 속에서 좀 더 특별함을 만끽하는 것도 나름 유익한 일인데  
왜 그렇게 평범에 집착하게 된걸까

어느 순간부터 감성을 비웃게 되었다.  
사는게 녹록치 않다는게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할 무렵부터  
나의 감성은 물론 남의 감성까지 난 귀달고 맘달게 되었다.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자꾸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는데 대체 뭐가 현실적인거야,  
네가 말하는 현실적인건 미래적인거 아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겠단거겠지 네 현실이라는건 」

진짜 현실적인 것도 아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감성을 비웃었던걸까

그렇게 멋진 모험, 가슴에 혹 와닿는 예술, 세상을 바라보는 푸른 눈빛을  
꿈꿔도 되는걸까

심한 긴장 상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답만, 옳은 것만 찾아가려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강박이 생긴 것만 같다.

남은 한달은 모처럼 “현실”을 한번 놓아보고 싶다.



# Carlos's Essay

12월이 끝난 지금 1월, 남은 한달,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 한다고 이렇게 시간이 갔지 하는 순간의 고민이다. 이 고민은 최근 읽은 책에서 본 뜻 깊은 문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한국에 가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한 만큼 이 말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티모르 친구들과의 관계, 간사님들과의 관계, 우리 넷 안에서의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여러 상황에서 도전도 해보았다. 그래서 우리는?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아뵤 5개월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보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티모르 사람과 같은 피부색이 다된 나를 보면서,  
좀 더, 유연하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라는 단어들이 떠오른다.

